

A

교정치료를 위한 진단

교정치료의 목표는 치료후의 심미적 개선, 재발방지, 치주질환 예방 치아마모방지, 악 관절 질환의 예방 등을 고려 해야 한다

이상 위의 것을 만족 시키기 위해선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선 하악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에 치료에 이 해야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진단시 하악골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 방법, 안모 비 대칭이 경우나 악 관절 위치, 형태이상 등의 경우 치료전 진단시 주의 해야 할 사항 등을 알아보며, 진단시 간과하기 쉬운 경우 등 점검하는 방법 및 교정치료가 불 가능한 증례등을 증례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Non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of anterior open bite

A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정미향, 최원철, 박재우, 남동석

교정의는 부정교합의 문제를 3차원상에서 전후방, 수직적, 그리고 횡적으로 인식하며 그에 따른 진단 및 치료에 임하게 된다. 이 중 수직적인 문제, 특히 전치부의 개방교합은 교정치료가 어렵고, 또한 치료결과도 유지하기 어려운 부정교합의 한 형태로서 그 원인과 골격적 형태 및 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전치 개교의 원인은 다양하며 두가지 이상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의 치료는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치부 개방교합의 치료법으로는 크게 수술적 방법과 수술을 포함하지 않은 교정적 치료만을 들 수 있다. 비수술적인 치료방법으로는 1960 - 1970년대에 주로 쓰인 tongue crib이후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habit blocking appliance가 고안되었고, 대구치 과맹출에 대해서는 headgear and posterior bite block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MEAW 테크닉을 포함한 fixed orthodontic treatment로 치료에 임하기도 한다.

골격의 이상 발육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 사춘기 이전에는 functional appliance 등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의 효과는 확신할만하지 못하며 사춘기 이후 재발악화 되는 경향이 있어 최근에는 악교정 수술로 이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본 연제에서는 전치부 개방교합을 가진 환자 3증례의 비수술적 치료결과를 제시하고 교정치료의 한계선도 살펴보자 한다.